

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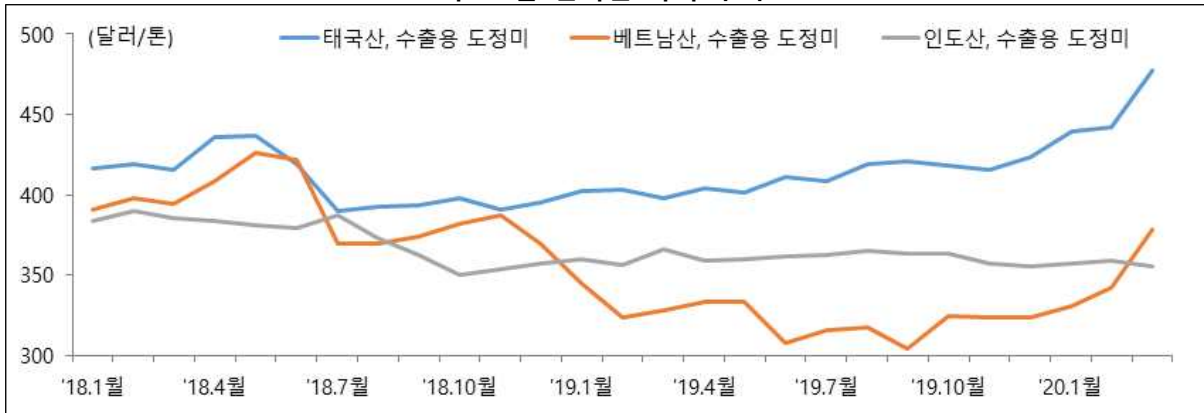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정 석 완 (kdbcsw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, 물류 중단, 방역 강화로 인하여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, 식량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
- ◆ UNFAO의 권고사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, 비상시 품목별 확보 방안을 계획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함

□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식량 부문의 수급 불균형 우려 확산

-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,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난 및 수급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
 -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의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이 중지된 상태이며, 유럽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프랑스에서도 내부적인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되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
- UN식량농업기구(UNFAO)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
 -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,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두

주요 쌀 산지별 가격 추이



자료 : UNFAO

-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
 -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,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,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
 - 개인의 영양상태는 면역력과 감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, 거시적으로 방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식량의 생산 및 도입, 보관, 공급, 분배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필요
 - 주요 식량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, 영양 측면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 마련

주요 수입 식량품목의 수입국 및 수입액('19년 기준)

(단위 : 백만달러)

식용 고기와 내장			곡물			어패류		
순위	국가	수입액	순위	국가	수입액	순위	국가	수입액
1	미국	5,231	1	미국	1,071	1	중국	1,086
2	호주	2,370	2	브라질	746	2	러시아	920
3	독일	348	3	아르헨티나	598	3	베트남	584
4	스페인	278	4	호주	345	4	노르웨이	412
5	브라질	244	5	우크라이나	215	5	미국	22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